

파나마

한국선주협회는 해상교역의 관문인 세계 주요항만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세계의 항구'를 20여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부터 연재되는 항만기획시리즈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 연혁

7만6,000Km 의 작은 나라 파나마는, 2백 8십만의 인구를 가진 중앙아메리카 대륙의 심장부이다. 서쪽으로는 코스타리카(부유한 해변의 나라), 동쪽으로는 콜롬비아, 북에서는 대서양, 남쪽으로는 태평양의 에메랄드 바닷물을 가진 나라의 모습이다.

위대한 몽골의 후에 인디언이 밭을 내디딘지 수천년 후에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자랑 삼아 여기하는 스페인의 로드리고 데 바스티다스에 의해 1501년에 재발견 되어 많은 황금과 보석을 획득한 후 150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베라구아스에 닿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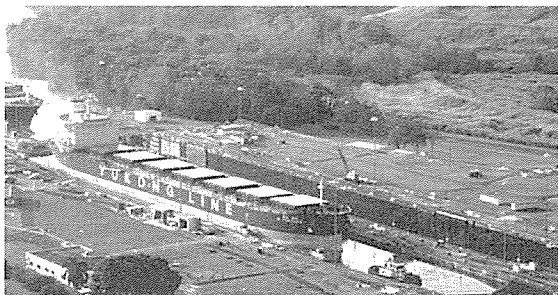
1513년에 바스코 누네즈 데 발보아가 지협을 횡단한 후에 신대륙의 교통요지로 번창하였으며, 17세기에는 헨리 모건 등 해적들이 여러 차례 습격하였다. 1812년에는 대(大)콜롬비아의 한 주로서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났으며, 1903년 파나마 운하 조약

의 비준을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을 계기로 미국의 지원을 얻어 콜롬비아로부터 분리·독립하는 대신 파나마는 운하지대의 영구조차권, 치외법권, 무력간섭권을 미국에 인정하였다.

그 후 20세기 초에는 로렌소를 지도자로 한 게릴라전 등 파나마의 주권회복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바나나 재벌인 유나이티드푸루트사를 비롯한 미국자본의 진출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한편 1964년 1월에는 운하지대의 주권회복과 미국자본의 축출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나 한때 미국과 국교를 단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으나, 이때문에 운하 수입이 줄어든데다 외국자본이 철수함으로써 실업이 증가 농업생산의 후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어 1968년 10월에는 O. 토리호스 대령이 이끄는 쿠데타가 일어나 군정을 폈으며 운하, 운하지대에 대한 주권회복을 목표로 한 교섭을 벌인 끝에 1977년 9월 신 파나마 운하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정오부터 운하를 비롯한 모든 권리가 파나마로 반환된다.

1978년 10월에는 토리호스가 정치에서 물러나 자신은 국가방위사령관의 직책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로요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토리호스가 항공기 사고로 죽자, 1982년 파레데스가 쿠



데타로 실권을 잡으면서 부통령 에스프리에샤가 로요의 뒤를 이었다.

1983년의 개정헌법에 의거한 1984년의 총선거에서는 발레타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1985년 사임하고, 부통령인 델바에가 계승하였으나 실권은 군 총사령관 노리에가가 장악했다. 그러나 노리에가가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실권, G.엔다라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센타보의 역사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미국의 동해 대서양에서 미국의 서해 태평양으로 항해하려면 남미의 호온곶을 돌아야 하는 1만 3,000Km의 긴 항해가 필요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기까지는 주변의 나라들의 기대이익, 사업가들의 이권다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1880년대 수에즈 운하를 완공시켜 공학기술상 개가를 올린 프랑스인들은 그 당시 콜롬비아령인 파나마 지역에 수로를 파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10년의 작업과 14억프랑(2억 8,700만불)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2만 명의 희생자를 낸 뒤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때 미국에서는 니카라과를 통과하는 노선의 운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나마 지역에 이권을 갖고 있던 사업가들은 파나마에 운하가 건설되기를 바랐으며, 파산한 프랑스의 운하회사 주주들도 파나마에 있는 자산들을 팔아 보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때 니카라과수프리에르와의 빠르게에서 화산이 폭발하였다(1902년). 미국상원에서 운하의 통과에 대한 투표가 예정된 3일 전, 프랑스 운하회사의 전 주임기사였고, 파나마 운하 건설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던 필립프 뷰노 바릴라는 연기를 내뿜고 있는 화산을 그려 넣은 니카라과 우표를 상원의원 전

원에게 우송하였다.

투표결과 상원의원들은 8표차로 파나마 운하의 건설을 승인하였다.

이 우표는 니카라과구에 활화산 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상원의원 중 상당수가 운하통과 예정지에 활화산 군이 있다는 것을 크게 염려하여 마음을 바꾼 것이다.

유럽에서의 1만 2,000명. 서인도 제도에서의 3만 1,000명 등 방대한 숫자의 노동력을 투입한 끝에 1914년 8월 15일 마침내 운하가 완공되어 8만 1237톤의 퀸 엘리자베스호가 사상 최초로 이 운하를 통과하였다.

● 파나마의 미래

1914년 개통이래 80만 척 이상이 이 운하를 통항하였으며, 60억톤 이상의 화물이 이 운하를 따라 움직였다.

현재는 1만 4천여 척의 배가 연중으로 통항하고 있으며, 1993년 2월 25일에 제정된 연방법 Act 5가 95년 3월 7일에 개정된 Act 7에 따라 파나마 운하의 개발이 국가의 정치적 목표로 되고 있다.

이제는 관광(Cruise 선), 금융·산업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기대하며 중앙아메리카의 지리적인 중앙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파나마의 미래이자 꿈인 것이다.

